봉은사 망실토지, '정부 70억 배상' 판결

서울 봉은사, 5월 30일 고법 상고심서 승소

1심보다 10억 원 줄었지만
정부 책임 명백히 인정돼

50년 전 봉은사가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망실한 땅을 돌려받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약 7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 강영수)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정부가 봉은사에 약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사안에 대한 봉은사의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시 80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에 정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봉은사 손을 다시 들어준 것이다.

봉은사가 배상 판결을 받은 토지는 서울 강남구 일대 793.4㎡(240평)으로 1950년대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소유가 봉은사서 정부로 넘어갔다. 당시 정부는 봉은사 소유의 삼성동 일대 토지 6만8970㎡(2만900평)을 매입했다.

정부는 1968년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민들이 불하를 받지 못한 토지를 원소유주인 봉은사로 돌려줘야 했으나, 1971년 공무원들의 서류조작으로 봉은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당시 1979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해당 공무원들은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명백한 서류 조작에 의한 토지 망실이기에 봉은사는 취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1월 취득시효 완성으로 패소했고, 2017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해당 토지는 1968년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소유주인 봉은사에 환원됐어야 하지만, 공무원이 상황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났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해당 토지 시가 합계액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약 100억 원 상당이다. 법원의 판결은 봉은사가 토지 지가 보상을 받았고, 부주의 내지 공평원칙으로 일부 정부 책임이 제한된 보상액에 해당한다.

노덕현 기자

호명 스님 공약 "첫째도 둘째도 화합"

태고종 27대 총무원장 단독후보에게 듣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태고종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화합이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로 여겨집니다. 총무원장 당선이 확정되면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이라는 마음으로 종도들의 뜻을 하나로 뭉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순천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은 종헌종법에 따라 6월 27일 진행되는 총무원장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4일 호명 스님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승가교육 · 포교 · 종무행정 등 각 분야에 대한 공약과 목표를 들어봤다.

호명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이후 첫 계획을 '3원장 회의의 활성화'로 잡았다. 총무원장 · 종회의장 · 호법원장이 함께 종단 주요사안을 논의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방종무원장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종법기구로 격상시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종단을 화합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제가 총무원장에 당선되면 종단의 모든 일은 3원장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할 겁니다. 또한 지방종무원장협의회를 친목단체가 아닌 종법기구로 격상해 종무원장들이 종무위원으로 활동하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풀뿌리 종도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호명 스님은 승가교육과 승가복지, 포교를 주요한 종단 현안으로 꼽았다. 시대 흐름에 따른 출가자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출가자의 고령화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태고종에서도 풀어야할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호명 스님은 학사학위과정은 운영하지 않고, 석 ·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대학교' 등의 교육시설 설립을 꿈꾸고 있다.

"과거에 태고종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와 인연을 쌓았던 것처럼 다시 관계를 개선하거나 여력이 된다면 새로운 대학원대학교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기 내에 쉽사리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큰 틀을 잡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선암사 강원도 출가자가 점차 감소해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체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

3원장 회의 활성화 비롯해
종무원장協 종법기구 격상
종단 위상 높일 방안 모색
"풀뿌리 종도 의견 청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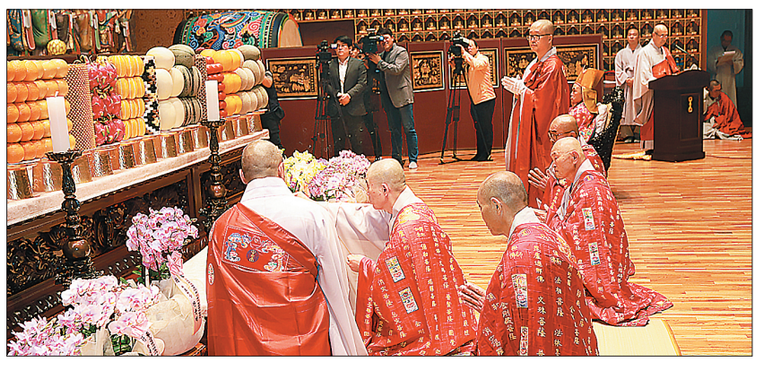
호명 스님은 또한 태고종 특성상 스님들의 2~3세대 자손이 출가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종단인재로 키워낼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태고종은 대부분의 종단 채무를 해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특별기금으로 남아있던 18억 원을 전액 사용해 교육기금이 전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폭력분규사태 당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전순서도 2순위에서 5순위까지 내려앉았다.

호명 스님은 이 같은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전문가인 스님들을 만나 교육기금 마련 계획을 세우고, 스님들이 교육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전순서와 관련해서는 "태고종이 수석부회장으로 올라가고 싶어도 이미 다른 종단들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다른 종단과의 교감을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6대 총무원장인 편백운 스님은 6월 4일 종무회의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종단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겠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누가 원장으로 선출되더라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 상월원각조사 45주기 열반재

단양 구인사서 불교지도자 등 2만여 대중 추모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 지도자와 천태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불교운동으로 한국불교 중흥에 이바지한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조사의 열반을 추모하고 가르침을 되새겼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5월 31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불교지도자, 지자체 관계자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45주기 열반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봄바람에 꽃이 피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듯 천지만물이 제각각의 본분사를 이어가니, 대조사님의 정법 향훈이 가득한 우리 종단은 원만각행의 보살도를 펼치며 사회와 국가의 번영을 향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은 차석부회장 회성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독한 추도사에서 "대조사께서는 민족의 암울한 시기에 수많은 중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천태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며 "천태종은 대조사님의 가르침과 불조의 혜명을 이어 21세기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쳐나가는 종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조 가르침 지혜의 빛 삼아"

조계종조 도의국사 추모다례
6월 4일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한국불교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6월 4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를 봉행하고, 도의국사가 한반도에 남긴 값진 선풍을 선양했다. 다례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교역직 종무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조의 법향이 시절인연을 좇으시니, 회적도명타가 무위임운으로 진리의 본체를 드러냄이라. 이로 좇아 조계종지가 동서와 고금을 넘어서 면면부절하여 금일에 이름이라"며 "종조께서 염원하신 선풍진작과 화합원융의 원력으로 사해오호의 만 중생들이 동서도 없고 남북도 없으며,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는 진리의 낙을 영득하게 하여지이다"고 강조했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조계종 스님들이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에서 예를 올리고 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모사에서 "조계종은 17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선과 교를 아우르며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평상심이 곧 도이며, 마음의 법문이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더욱 발전시켰다"며 "후학들은 조사님의 가르침과 역대 선사들의 말씀을 지혜의 빛으로 삼아 정진해 나가고 있다. 울창한 숲과 같은 선대들의 유산 안에서 불교의 현대화, 사회화를 모색하고 있다. 자비 나눔 등 한국불교의 사회적 활동과 복지는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듬고 있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이어 "뭇 중생의 고통을 나누고 정토세계를 구현하는 지름길은 수행하는 종단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다. 화합하고 혁신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면서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오늘의 서원으로 받들어 환한 백만의 연등으로 피워내고 있다. 한국불교 백만원력결집의 공덕이 내일로 이어져 온 세상 국토와 중생의 삶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의국사는 통일신라시대 스님으로, 중국의 조사선 전통을 최초로 국내에 들여와 선법을 펼쳤다. 직접 조계종을 개창하지는 않았지만 선종의 역사에 굳게 자리 잡아 해동선문의 초조로 추앙받는다. 이에 조계종은 1941년 제정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산태고사법'에서 명시한 도의국사 기일인 음력 5월 2일에 맞춰 매년 다례를 봉행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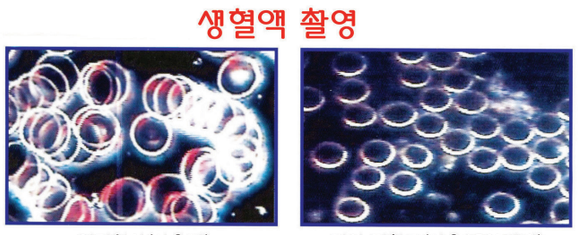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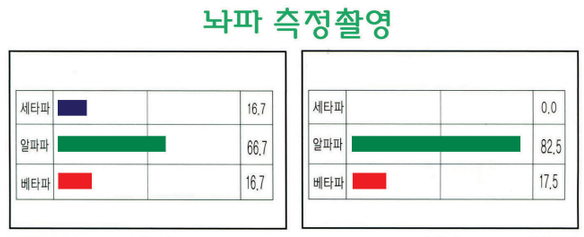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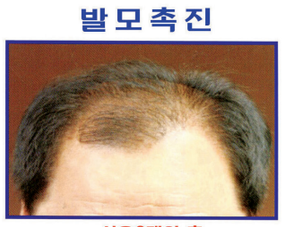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탈모예방



사용전

발모촉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